

홍차 한잔이 주는 사고

어떻게 강한 브랜드 제품을 만들 것인가

차잔 데우기, 투자, 우려내기, 차 붓기... 다에서의 숙련된 조작하에 투명한 황금빛 차가 관객들에게 차례진다. 2024년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 중국브랜드박람회 호북성 전시관 문어구에서 많은 전시회 참가자들이 차를 한잔씩 받아마시면서 “참 맛있다”, “많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 차는 우리 호북성 은시(恩施) 투자촉진투자처 리전시에서 온 리전 홍차입니다. 향이 은은하고 맛이 담백하고 부드러운데 상쾌하지요...” 모여온 이들은 차를 음미하는 한편 호북성리전홍산업그룹유한회사 마케팅 책임자 진맹추의 소개를 듣는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도와 리전 홍차를 많이 소개해주세요.” 차를 맛보고 자리를 뜨는 이들에게 진맹추는 이 한마디를 꼭 잊지 않았다. 진맹추는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와 같은 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리전 홍차를 료해하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좋은 차라면 그 래도 좋은 브랜드의 선도가 있어야 하

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진맹추의 노력은 우리 나라 차산업 및 농산업을 직면한 큰 과제를 반영한다. 어떻게 차 브랜드를 강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나라의 차생산 대 국이고 차소비 대국이다. 2023년 우리 나라의 차생산량은 355만톤으로 6.1% 증산되었다. 그러나 차산업도 ‘크지만 강하지 않은’ 등 문제에 직면했는데 관건적인 요소의 하나는 브랜드화 정도가 높지 못한 데 있다.

어떻게 우리 나라 차 등 농산물의 산업 우세를 브랜드 우세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는 많은 중국 차기업의 필답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국 농산물기업, 식품기업이 줄곧 모색해온 과제이기도 하다.

제품 품질, 판매 경로 등에 공을 들이는 것은 브랜드 영향력을 높이는 기초이다. 섬서성 유림시는 전국에서 독립적으로 2024년 중국 브랜드의 날 전시회에 참가한 7개 지구급 시의 하나로서 황산구가 ‘섬복 황산 양 고기’ 등 계열 농산물의 브랜드 품질

과 신용을 보장하는 표준화 생산, 관리와 감독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면에 기반 노력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다. 황산구는 전과 경로 자원을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 브랜드의 육성, 관리, 보호 기제를 보완하여 브랜드의 명예도를 제고시켰다.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려면 또 브랜드의 ‘대외진출’을 강화하고 글로벌 브랜드와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2024년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장 해간그룹 부스에서 코코넛주스, 커피, 열대과일 아이스크림 등은 짙은 열대 바다섬 풍정을 보여주었다. 해간그룹 산하의 각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와 상당 교류하고 구매 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협력 공간을 부단히 확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

브랜드 파워를 확대하려면 브랜드 자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저온 남새를 발전시키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녀하 고원시는 이번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에 서길 파슬리, 팽양 고추 등 다양한 랜드마크 명품을 갖고 참가해 지역 브랜드의 산업 발전 계획, 핵심

우세 및 광활한 전망을 전시 소개했다. 소개에 의하면 현재 고원시는 이미 18개 국가 지리표시 보호 제품, 10개 국가 지리표시 증명 상표가 있으며 저온 남새는 전부 무공해농산물산지 인증을 통과했다.

전통문화의 내포를 발굴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는 독특한 우세이다. 차는 사람의 지향이나 의지를 고상하게 만든다. 중국의 차문화는 검소, 고상, 담결한 군자의 인격을 내포하고 있다. 진맹추의 견해에 의하면 차있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중요한 담체이다. 중국 차 브랜드를 강화하고 자신의 특유한 브랜드 우세를 형성하려면 전통문화의 기를 잘 잡고 차이에 부각된 우수한 전통문화의 함의를 잘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국 브랜드의 날 행사에 참가한 후 진맹추와 그의 팀은 바로 무석 등지로 달려가 자신의 제품을 진일보로 홍보한다고 한다. 세계로 나아가고 브랜드를 강화하려는 꿈을 실현하려면 중국 농산물 기업에 남겨진 과제 또한 많다. / 신화사

‘중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의 중관촌’으로

—2024 중관촌포럼에서 보는 과학기술혁신

2024 중관촌포럼 년례회의와 더불어 북경에 또 한 번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2007년에 탄생한 중관촌포럼은 이미 우리 나라가 세계 과학기술혁신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과학기술관리에 깊이있게 참여하는 중요한 창구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혁신에 의한 발전, 국제 개방협력의 중요한 견증으로 되었다.

눈에 보이는 혁신성—
500 마이크로, 76 초, 5 분

2024 중관촌포럼 현장에서 ‘중관촌 속도’에 관한 해답은 간결, 강력했다. 1 마이크로초(微秒)는 백만분의 1 초, 초전도 량자 컴퓨팅 분야에서 관련 시간이 1 마이크로초 높아질 때마다 재료와 공정은 거대한 도전으로 된다.

북경량자정보과학연구원 중관촌포럼에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돌파를 보인다.

2020년, 세계 최초의 량자 직접 통신 원리 시제품이 출시된 데 이어 2021년에는 큐비트(량자 비트)의 관련 시간을 500 마이크로초 이상으로 높여 2020년 3월 프린스턴대학에서 세운 360 마이크로초의 세계기록을 깬으며 2023년에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단집 비트수가 가장 높은 량자 계산 클라우드 플랫폼인 ‘과부’(夸父, 전설인물)로 국제 선진 수준에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되었다.

올해 2세대 ‘과부’ 량자 클라우드 계산력 집군의 등장은 놀라움을 더했다. 590개에 달하는 큐비트가 ‘질주’하여 클라우드에서 연산이 빠르고 진실도가 높으며 여러가지 지표가 국제 ‘제1세대’에 올랐다.

북경량자정보과학연구원 집행원장 상개에 의하면 해당 기술은 “비밀번호 해독, 약물 연구개발, 교통과 물류 최적화 등 국가 경제와 민생에 관계되는 응용 장면과 같이 계산 속도를 크게 가속하여 ‘계산력 불안’을 해독할 수 있게 된다.”

76 초, 소미(小米) SU7 자동차 한 대가 생산라인에서 완성되는 시간이다. 이는 얼마전 북경 북부의 소미스마트공장이 1초 만에 휴대전화 1대를 완성해낸 데 이어 북경 남부에 있는 소미자동차공장이 전하는 승전보이다.

소미자동차의 ‘승부수’를 보면 전기 드라이브, 일체화 배터리, 슈퍼 대압 주, 스마트 운전, 스마트 곤돌라에 이르기까지 5개 핵심 분야의 핵심기술 자체 연구 모두 다차원 선두를 실

현했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혁신 체제와 기체 개혁, 성과 전환과 산업화의 선두 주자로서 중관촌은 과학기술체제개혁의 ‘시험전’ 역할을 발휘하여 먼저 전국을 복사하는 개혁 조치를 시험함으로써 혁신주체의 무한한 활력을 방출하였다.

중관촌의 혁신 구동하에 2023년 북경에 신설된 과학기술형 기업은 12만 3,000개에 달한다. 평균 5분도 안돼 북경에서 과학기술형 기업이 탄생했다.

설립 1년이 되는 북경심지달성기술유한회사가 자체 개발한 ‘북뇌 2호’는 올해 중관촌포럼 년례회의에서 발표되자마자 사방을 놀라게 했다. “대규모 단세포 신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록과 부호 해독(解码)의 국제 난제를 해결하여 우리 나라 고성능 침입식 뇌-기계 인터페이스(接



중관촌포럼 전시센터에 전시된 ‘북뇌 2호’ 뇌-기계 인터페이스

口)의 공백을 메웠다.”

“뇌-기계 인터페이스는 미래산업의 포석중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반드시 분초를 다투어야 한다.”고 북경 뇌과학및류뇌(类脑, 차세대 인공지능계통) 연구소 소장 라민민은 말했다.

중관촌, 이 ‘촌’은 얼마나 신기한 곳인가?

“2010년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좁쌀죽 한그릇을 마시고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창업을 시작했다. 중관촌은 정말 신기한 곳이다. 10여명의 작은 회사가 설립 초기부터 천하를 품고 글로벌 시장이 되기를 희망했었다...”고 소미그룹의 창시인이며 리사장 겸 수석 집행관인 리군은 2024 중관촌포럼 년례회의서 발언 시 14년 전의 창업의 나날을 회고했다.

2024 중관촌포럼 년례회의의 한 회인 ‘중관촌 과학기술 성과 전환 50인 포럼’이 개최된 곳—중관촌 소프트웨어단지. ‘뒤마당 공장촌’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1평방키로메터당 창조해내는 생산액이 1,831억원에 달한다. 이 단지의 5년간의 단위면적 평균 수입도를 펼치면 969억원에서 1,83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강력한 성장력에 대해 중관촌 소프트웨어원 총경리 강애나는 “혁신이 중요한 지점이다. 오늘의 ‘과학’ 함유량, ‘새로움’의 함유량은 래일의 ‘금’ 함유량을 이룩했다.”고 한마디로 풀이해주었다.

중관촌 소프트웨어단지는 원시혁신, 기술착지를 막론하고 모두 세계 최전연을 탐색하고 국제 일류를 겨냥한다.

2020년 중관촌 시범기업의 유효

중관촌포럼에 여러차례 참여한 혁신공장 리사장이며 최고경영자인 리개복은 “세계가 중관촌을 보는 시야가 세계가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관촌은 줄곧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간주되었다. 바이두, 소미, 하이보스창, 지보화장... 많은 국가 하이테크기업, ‘전, 정, 특, 신’ ‘소거인’기업, ‘유니콘’기업이 탄생했고 여러 가지 혁신 지표가 전국을 선도했다.

올해, 100여개 나라와 지역의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을 토론했다. 이 수치는 2019년의 2배이고 이번 포럼의 외국적 투자 및 강연 귀빈이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초과했다.

개방협력은 시중 중관촌포럼 주제의 관건적 함의이다.

‘하드과학기술기업의 성장 요람’으로 불리는 중관촌 국제전연과학기술대회는 올해 제 7차 결승전 시상식을 맞이했는데 대회의 국제 참여도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여 75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3,100여개 종목이 참가, 국제종목수는 그 전회의 4배로 올해 참가 종목 총수의 40%를 초과했다.

올해 중관촌 국제기술거래대회는 ‘과학기술 외교관 교류협력회’를 증설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19개 국제기구, 외국 정부부문에서 17차례의 평행포럼을 개최했다.

더욱 높은 국제 참여도, 인정도는 중관촌포럼의 날로 늘어나는 영향력을 반영하고 중관촌의 글로벌 연결력과 복사력을 보여주었다.

현재 300여개 다국적 기업이 중관촌에 지역 본부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고 ‘나아가기’로 중관촌 기업이 설립한 경의 분기구는 몇백개에서 수천개로 늘어나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관촌은 북경의 중관촌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중관촌, 세계의 중관촌이다.

2024 중관촌포럼 년례회의서 발표된 <중관촌 세계 선도 과학기술단지 건설방안(2024-2027년)>은 중관촌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의 ‘세계 선도 과학기술단지 건설 가속화’에서 ‘세계 선도 과학기술단지 전면 건설’로 변화시켰다.

오늘날 1만 7,000개 국가 첨단기술기업, 400여개 상장회사, 85개 ‘유니콘’기업, 영업수입이 1,000억원을 넘는 11개 기업은 중관촌이 세계 혁신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발걸음을 그려냈다. / 신화사

우리 성 국가급 ‘과학기술뜨락’

100개 넘어... 전국 1위

성과학기술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농업기술협회의 비준을 거친 우리 성 국가급 ‘과학기술뜨락’(科技小院)은 이미 105개로 전국에서 그 수량이 1위로 올라섰다.

우리 성의 ‘과학기술뜨락’은 15년간 발전해왔다. 다년간의 실천 탐색을 거쳐 성과학기술협회는 점차 ‘당위원회가 지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과학기술협회서 주도하고 부문이 련동하며 대학에서 지지하고 실체가 견인하며 농민이 수익하고 산업이 발전하며에 의하면 차있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중요한 담체이다. 중국 차 브랜드를 강화하고 자신의 특유한 브랜드 우세를 형성하려면 전통문화의 기를 잘 잡고 차이에 부각된 우수한 전통문화의 함의를 잘 보여줘야 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뜨락’ 공동 건설 대학교, 과학연구소는 도합 14개, ‘과학기술뜨락’ 시(주) 피복률 100%, 현(시, 구)역 피복률 83.6%로 옥수수, 벼, 잡곡, 사육(소, 양, 흑돼지), 인삼, 꽃사슴, 베리류 열매, 식용균 등 48개 산업 유형을 포섭한다. 특히 변경지역 이룬데면 통화, 백산, 연변 등 지역에 위치한 ‘과학기술뜨락’이 28개로 흥분부민 전략의 실시를 효과적으로 촉진

시켰다.

농업과학기술 보급 모식에서 성과학기술협회는 문제 해결을 선도로 기증 수요로부터 출발하고 실제로부터 출발하는 ‘하향식’봉사를 전개하고 보급 응용을 강화하여 ‘과학기술뜨락’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효율이 뚜렷이 제고되었다. 현재 전 성 ‘과학기술뜨락’은 전문가 167명, 상주 연구생 227명, 일지 3,029편 작성, 신품종, 신기술 154개 보급, 학술논문 177편 발표 등 데이터를 형성했다. 이와 동시에 형식이 다양한 농업과학기술 보급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 4월까지 각 ‘과학기술뜨락’은 온라인을 포함하여 루게로 761회의 농업과학기술 훈련을 전개하고 과학기술 보급 문장과 영상 485편을 발표했으며 3만여가구의 농가에서 기술 봉사 혜택을 받았다. 또한 외래 참관학습 접대활동이 1,000여회로 연인원 2만여명이 참가했다.

‘과학기술뜨락’의 발전 성과가 충분히 인정되었다. 현재 전 성적으로 6개의 ‘과학기술뜨락’, 4명의 주재 연구생이 중국농업기술협회로부터 각각 ‘10대 우수과학기술뜨락’, ‘가장 아름다운 과학기술뜨락’, ‘가장 아름다운 연구생’ 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 길림일보

6G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24 중관촌포럼에 전시된 6G 통합산지융합 연구개발 시험장치

중관촌 범련이동통신기술혁신은 응용연구원은 클라우드 원생의 개방 및 6G 통합산지융합시험 검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 6G 다역융합 연구에 기초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6G 클라우드 중기간 어의 통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부화시켰다. 이는 2024 중관촌포럼 년례회의서 중대 성과의 하나로 발표되었다.

이는 어떤 성과이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5G와 비교 6G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세계는 어떤 6G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 시스템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 국제표준화 기구가 초보적으로 확정된 6G 개발 일정에 따르면 2025년경에 표준화 연구를 시작하고 2030년경에 상용화한다.

중국통신표준화협회 부리사장 겸 사무총장 대효혜에 따르면 6G는 더 빠른 속도, 매우 낮은 지연, 더 큰 연결 밀도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인공지능, 지능감지 기타 기술의 심층 융합을 실현할 수 있는바 앞으로 홀로그램통신(全息通信), 자율주행, 디지털트윈(数字孪生),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중관촌 범련이동통신기술혁신 응용연구원 상무부원장이며 중국이동통신연구원 원장인 황우홍은

6G는 5G 성능을 진일보 강화하는 기초에서 통감(通感)일체, 통지(通智)일체, 공천(空天)일체를 실현하게 되며 통신 써비스만 아니라 감지, 컴퓨팅, 인공지능 등의 능력과 융합해 이동통신망을 모바일 정보망으로 확장, 써비스를 더욱 다각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6G의 능력 ‘신중량’에 대해 진일보로 해석했다. 즉 통감일체와 통지일체는 통신, 감지, AI가 일체형 써비스로 융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천일체는 주로 미래 네트워크 복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상 복사에 국한되지 않고 위성 등 공중 네트워크를 리용함을 말한다.

황우홍은 중관촌 범련이동통신 기술혁신응용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최초의 6G 클라우드화 중기간 어의 통신 시스템에 관해 “이 플랫폼이 있으면 각종 분류 연구의 신기술이 플랫폼에 연결되어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술을 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을 통해 일부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미래의 6G 네트워크 구축에 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성공적으로 정보 전송 효율을 3배 제고시켜 전사회의 정보 류통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앞으로 각 분야에서 광활한 응용 전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신화사